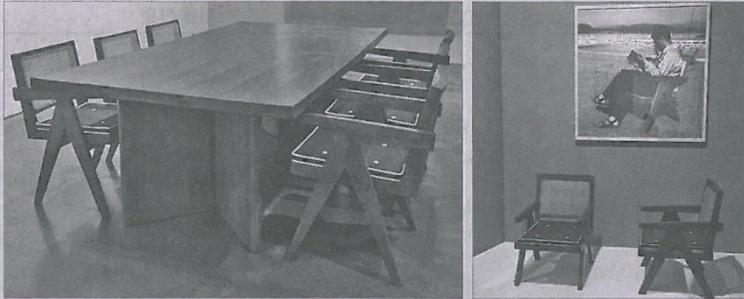


## 모더니즘 가구, 인도를 만나다

11 May, 2016 | 함혜리 기자



건축가 겸 디자이너 피에르 잔느레가 디자인한 가구를 견고한 재질과 균형 잡힌 형태의 미가 두드러지는 가구들은 근대건축 특유의 이상주의적 개념과 민속공예의 성공적인 결합으로 평가된다.

## 모더니즘 가구, 인도를 만나다

르코르뷔지에-잔느레 '찬디가르 프로젝트전' 국제갤러리서 29일까지

모더니즘 건축의 거장 르코르뷔지에와 건축가 겸 디자이너인 피에르 잔느레의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전시가 서울 삼성로 국제갤러리 2관에서 열리고 있다. 르코르뷔지에(1887~1965·본명 샤를 에두아르 잔느레)와 피에르 잔느레(1896~1967)는 사촌간으로 50여년간 협업하며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건축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르코르뷔지에, 피에르 잔느레: 인도 찬디가르 1951-66'전은 두 사람이 인도 편자브주의 주도 찬디가르에서 진행한 공동 도시계획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찬디가르 프로젝트는 인도 고유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존중하면서 진보적인 도시를 건설하는 20세기형 신도시를 세우는 프로젝트였다. 이들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찬디가르를 행정도시로 기획하고자 한 인도 정부의 의뢰를 받아 1951년부터 국회의사당, 고등법원, 간디도서관 등 주요 행정 건물의 건축 디자인과 실내건축, 가구 디자인을 총괄했다.

특히 잔느레는 독창적이고 진취적인 역량을

통해 미약한 산업여건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그는 현지의 문화적 특성과 기후에 맞게 집무실 책상, 응접용 테이블, 도서관 책상과 의자를 디자인해 통일성을 추구했다. 가구들은 인도 현지의 토속적인 재료와 장인의 전통적인 공예기술을 접목해 만들었다. 'X' 'U' 'V' 형상의 단순한 디자인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한 가구는 견고하며 정교하게 가공한 것이 특징이다. 지역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티크, 장미나무와 대나무 줄기를 활용한 가구들이 이번 전시에서 중점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실제 사람들이 관공서나 도서관에서 사용한 가구들이다.

잔느레는 찬디가르 건축사무소의 책임자로서 15년간 인도에 머무르며 프로젝트의 실행과 관리감독을 총괄했다. 이후 찬디가르 건축학교 교장을 지내고 현지인들에게 모더니즘적 건축 양식을 전파하는 등 인도 건축사에 크게 이바지했다. 전시는 29일까지.

글·사진 함혜리 선임기자 lotus@seoul.co.kr